



최다 참가 관악콩쿠르 4개 부문 1위 배출



트럼펫 최고상 한국 이현준
테너 트롬본은 영국의 가렛
호른은 중국 리우 양이 차지
금관5중주는 체코 브라스넷
“최고 수준… 잠재력에 중점”

2019제주국제관악제는 세계의 젊은 관악인들이 ‘금빛 선율’을 그리며 막을 내렸다. 지난 16일 저녁 제주아트센터에서 제20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1위 입상자 음악회를 내년을 기약했다.

이번 콩쿠르는 역대 최다 참가자가 몰렸다. 호른 6개국 58명, 테너 트롬본 11개국 67명, 트럼펫 10개국 69명, 금관5중주 7개국 11팀(55명) 등 15개국 249명이 9일부터 15일까지 경연을 벌였다.

지난 16일 공개된 심사 결과를 보면 1~3위 입상자에 한국 2명, 중국 2명(팀), 폴란드 2명, 프랑스 2명, 영국 1명, 호주 1명, 콜롬비아 1명, 체코 1팀이 이름을 올렸다. 금관5중주 2팀을 포함 43명이 경연한 일본, 금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과 협연으로 입상자 음악회 연주를 펼치는 트럼펫 1위 이현준, 테너 트롬본 1위 영국 크리스 가렛, 호른 1위 중국 리우 양 (사진 왼쪽부터).

관5중주 1팀 등 23명이 나선 대만은 한국(112명), 중국(34명)과 더불어 참가자 수가 많았지만 입상권에 들지 못했다.

트럼펫은 한국 이현준(한양대 3)씨가 1위를 수상했다. 동아음악콩쿠르 1위, 금호 영아티스트 독주회 경력을 지닌 그는 2년 전 콩쿠르에 참가해 2차까지 진출했고 두 번째 도전 만에 1위에 올랐다. 2위는 폴란드의 알렉산더 코버스, 3위는 프랑스의 플로렌트 파니에가 뽑혔다.

테너 트롬본 1위는 영국의 크리스 가렛에게 돌아갔다.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부다페스트 국제트롬본콩쿠르, 독일 IPV 트롬본 콩쿠르 등에서 1위 입상 경력이 있다. 2위는 폴란드의 자렉 마이느 야로슬로, 3위는 프랑스의 니콜라 쿠니이 받았다.

호른은 중국 리우 양이 차지했다.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와 주세페 시노폴리음악원을 졸업한 연주자로 중국 호른 콩쿠르 우승 경력자다. 리우 양은 6

년 전 콩쿠르에 참가했던 연주자로 이번에 대회의 발전상을 경험하며 최고상을 가져갔다. 2위는 한국의 김재이(서울예술고 2), 3위는 콜롬비아의 존 케빈 로페즈 모랄레스가 수상했다.

금관5중주 부문은 프라하 국립음대 학생들로 구성된 체코의 ‘브라스넷’이 첫 참가에서 1위의 기쁨을 안았다. 2위는 중국 베스너스 금관5중주, 3위는 호주 매버릭 금관5중주가 선정됐다.

1위 입상자 기자간담회에서 스캇 하트만(미국)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이 한복소리로 참가자 수준이 높았고 평했고 금관5중주 등 기대감을 뛰어넘는 기량을 보여줬다”며 “특히 아시아 참가자들이 증가한 점은 제주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자랑스러워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가자 수가 예년보다 크게 늘면서 연주를 일일이 들어야 하는 탓에 시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고·최저를 일단 구분하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보고 결선 진출자를 정했다”며 “교육자 등 경험



입상자 음악회를 펼치고 있는 금관5중주 1위 체코 브라스넷. 사진=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 제공

있는 심사위원들이 포진해 있어 가능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제주국제관악콩쿠르는 이미 국제음악콩쿠르계연맹(WFIMC) 인준을 받았고 국내외 콩쿠르에서 한 차례 실력을 인정받은 세계 각국 연주자들이 몰리면서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참가자들도 교류를 넓혀가는 대회로 경연을 넘어 제주의 여름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테너 트롬본 1위 크리스 가렛은 “제주 콩쿠르 2~3위 입상자들도 그 경력을 매우 자랑스럽다”며 “꼭 우승하지 않더라도 제주라는 도시에서 경연 뒤 아름다운 휴가를 보낼 수 있으니 참가 비용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 신청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콩쿠르 1위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별개로 유명 악기 제조사에서 부상으로 악기가 주어졌다. 이들은 내년 25회 제주국제관악제에 초청돼 유명 관악단과 협연 기회를 갖는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번주(8월 19일~25일) 무대 & 미술

소월의 시를 그림에 담을 수 있다면

김계환·장경희 부부 초대전
내일까지 노형 현인갤러리

부부 화가가 닮은 듯 다른 자연을 화폭에 담았다. 제주시 노형동 현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김계환·장경희 부부 초대전이다.

김계환 작가는 그 안에서 끝없는 생명력을 품은 채 스스로의 힘으로 치유하는 자연을 무한한 붓질로 그려냈다. 모슬포가 고향인 장경희 작가는 김소월의 시를 그림에 옮기듯, 단순화한 구도에 따뜻하고 문학적인 향기가 나는 작품을 내놓았다.

<공연>

▶제주도립 서귀포관악단 정기 연주회=8월 20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760-2494.

▶음악이 빛나는 서귀포=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타악기양상블 스틱킹, 양상블 & 칸초네, 팝스 콘서트, 뮤지컬 하이라이트가 이어진다. 760-3365.

▶양상블 ‘베이스 클럽’ 정기 연주회=8월 21일 오후 7시30분 아라무즈홀. 754-4697.

▶부산피아노듀오학회 연주회=8월 21일 오후 7시30분 문예회관. 010-8794-5637.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에스빠냐 아리랑=우리나라 가곡과 민요를 레퍼토리로 보유한 합창단으로 8월 22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 728-1509.

▶여민락 콘서트=제주도문화진흥원 주최 8월 24일 오후 7시 문예회관 야외광장. 710-7643.

▶백만장자의 힐링콘서트=8월 24일 오후 7시 서귀포관광극장. 732-1963.

▶제주목관아 작은 음악회=8월 24일 오후 7시 연희각 야외무대. 722-0203.

▶제주기독교합창단연합회 합창제=8월 25일 오후 7시 문예회관. 010-5692-9035.

<전시>

▶‘광해, 제주에 유배오다’ 특별전=8월 20~11월 20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710-7708.

▶김계환·장경희 부부전=8월



현인갤러리 부부 초대전 장경희의 ‘나무’.

20일까지 현인갤러리. 747-1500.
▶신정훈 개인전=연갤러리 신진청년작가전으로 8월 22~31일. 010-5697-1114.

▶2019 제주서예문화축제=한국서예협회 제주도지회 8월 22일까지 문예회관. 710-7633.

▶강승철 개인전 ‘용기, 존재를 밝히다’=8월 22일까지 제주용기미술관. 011-692-5709.

▶박선희 그릇전=8월 23일까지 아트인명도암. 727-1253.

▶권철 사진전 ‘군국주의의 망령-아스쿠니’=8월 23일까지 갤러리 ICC제주. 735-1001.

▶제45회 제주도 미술대전 선정작가 전시=제주미술협회 주최 8월 24~29일 문예회관. 710-7633.

▶제44회 제주도 미술대전 대상작가 초대전=8월 24~29일 문예회관. 710-7633.

▶제13회 탐라서예문화회원전=8월 24~29일 문예회관. 710-7633.

▶제주에서 단원 김홍도를 만나다=8월 25일까지 서귀포예술의전당. 760-3351.

▶정남 개인전 ‘사물들’=8월 25일까지 문화공간양. 755-2018.

▶홍향미의 ‘제주풍경 론도(Rondo)’=8월 26일까지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710-4246.

▶허가 토요일즈 사진 초대전=8월 27일까지 포지션민제주. 725-4410.

▶권하형·허란 사진전 ‘사건이 발생했다’=8월 27일까지 스페이스 산호. 010-3430-7334. 진선희기자

문창배 작가 대한민국미술대전 ‘최우수’

양화 부문 ‘시간-이미지’로
이번 수상에 초대작가 선정
도내외 공모전 화려한 경력
내년 자카르타 한달간 전시



수상작은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3점 등 총 424점에 이른다.

문 작가는 ‘시간-이미지’(2019)로 최우수상에 뽑혔다. 귀향 이후 2004년부터 천착해온 고향 바다 풍물의 이미지를 통해 상실된 고향과 존재의 원형, 진정한 자아를 찾아나서는 사유의 여행을 극사실화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번 수상으로 문 작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

가에 올랐다. 앞서 그는 1998년, 2000년, 2001년(구상, 비구상) 등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4회 입선 경력이 있다.

그동안 작업해온 ‘시간-이미지’ 시리즈를 정리하고 새로운 작품세계를 모색하기 위해 18년 만에 대한민국미술대전에 도전했다는 문 작가는 “최우수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선정돼 더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이달 2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화랑전시관에서 열린다. 입상작은 이달 19~2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전시된다.

제주 전업작가 문창배(사진)씨가 한국미술협회 주최 제3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 공모전에서 양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에는 한국화 582점, 양화 606점, 판화 12점, 조각 37점, 수채화 211점 등 총 1448점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승진

서기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서기관(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례리 가스름집 친척일동

승진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양영일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심회 회원 일동

승진

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익수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
소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利川徐氏重賢公系門中會

승진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정책과장

변영근

(배우자: 김미영(오라초등학교 교사))
(父: 변정기(前 원주면세 제주도중전회 회장) · 母: 강명옥)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정책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 일동